

## [첨부1] BIAC한국위원회 제1회 연례회의 행사개요

### □ 개 요

- 일 시 : 2018년 5월 3일(목) 오전 07:30-08:50 ※ 일부 공개(07:30~07:45)
- 장 소 : 롯데호텔 소공 피코룸(36층)
- 참 석 자 : 김 윤 삼양그룹 회장(한국위원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정동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상기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15명
- 주요내용 : ① BIAC한국위원회 소개 및 운영계획 내용 공유  
 ② 위원별 정책그룹 활동내용 브리핑  
 ③ <기타안건> 2018 BIAC 총회 관련 한국 입장  
 (2018 OECD forum 주제\* 관련)  
 \* 세계화합을 위한 현황파악과 액션플랜에 대해 논의 및 (1)국제공조, (2) 동반성장, (3)디지털화 등 세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 예정

### □ 프로그램 (안)

시 간	내 용	비 고
07:30-07:32(02')	사진촬영	
07:32-07:35(03')	개회사	김 윤 위원장
07:35-07:45(10')	BIAC 한국위원회 소개 및 운영계획(안) 보고	엄치성 상무
07:45-08:15(30')	조찬	
	정책그룹 활동내용 브리핑	위원당 3분 이내
08:15-08:45(30')	종합토론	각 위원
08:45-08:50(05')	BIAC 총회 시 발표의견 정리 및 공유	엄치성 상무

## [첨부2] BIAC한국위원회 명단

(소속 가나다順)

	소 속	성 명	직 합	참여 정책그룹
위원장	삼양그룹	김 윤	회 장	BIAC 한국 대표
위원회	법무법인 광장	박태호	원 장	통상위 (Trade)
		신동준	고 문	경쟁력위 (Competition)
		넬슨안	변호사	기업지배구조위 (Corporate Governance)
		윤영선	고 문	조세 및 회계정책위 (Taxation & Fiscal Policy)
		최석영	고 문	국제투자 및 기업행동강령위 (Int'l Investment &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대 표	반부패위 (Anti-Bribery/Corruption TF)
	김안장 법률사무소	남태연	회계사	조세 및 회계정책위 (Taxation & Fiscal Policy)
		서심석	변호사	조세 및 회계정책위 (Taxation & Fiscal Policy)
		이재훈	고 문	환경 및 에너지위 (Environment & Energy)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 사	조세 및 회계정책위 (Taxation & Fiscal Policy)
		정동수	고 문	건강보건위 (Health)
		정세훈	변호사	경쟁력위 (Competition)
	법무법인 화우	박상기	고 문	통상위 (Trade)
	2018 IFA 세계총회 조직위	전중훤	사무총장	조세 및 회계정책위 (Taxation & Fiscal Policy) 혁신 및 기술위 (Innovation and Technology) 디지털경제위 (Digital Economy)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상 무	BIAC 한국 사무국

## [첨부3] 위원장 인사말씀(안)

### < 개회인사 >

안녕하십니까,  
BIAC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삼양그룹 김 윤 회장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BIAC 정책그룹에 기꺼이 참여해주시기로 하신  
전문가 분들의 헌신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 < OECD & BIAC, 그리고 한국 >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한국의 GDP는 5,981억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1.4조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규모는 약 2.4배 성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OECD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경제에 한몫을 하며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던 시기에,  
민간경제계를 대표하여 전경련은  
OECD의 민간자문기구인 BIAC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012년부터 BIAC의 한국대표로서  
활동하기 시작해 올해로 벌써 7년째에 접어듭니다.  
활동하는 동안 지난 2016년에는 OECD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BIAC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한국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 < BIAC Korea 재정비 배경과 역할 >

그리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활동들을 재정비하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BIAC 한국대표로서 총회를 참석해오며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BIAC한국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① BIAC내 한국보이스 개진 ]

첫 번째로는, BIAC내에 한국 보이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세계적 위상에 불구하고 한국의 BIAC 활동은 다소 미진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BIAC 내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28개 정책그룹 중 8개의 정책그룹에서 일본인 인사가 의장이나 부의장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BIAC 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BIAC의 세부 분야에서 한국인 전문가의 활동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하는 전문가의 부재로 BIAC 내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지는 못했던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 [ ② BIAC 논의의 한국으로의 전달 ]

두 번째로는, BIAC 내 논의되는 이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경제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BIAC이 제시하는 여러 선도적인 정책들을 국내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구글세”는 BIAC에서 수년전부터 논의의 중심이 있었던 상황이었습시다만, 이것이 한국 내 사전에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BIAC의 논의들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인 정책변화, 궁극적으로 한국 개별 비즈니스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이슈들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문가 그룹 활동에 대한 기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모이신 각 정책그룹의 전문가들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BIAC의 세부 전문적인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국내 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이슈를 발굴해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사무국 차원에서도

BIAC한국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한국 내에 필요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 <마무리>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합니다.

BIAC 내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BIAC측에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회의가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각 정책그룹 활동에 참여키로 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